

배船

| 김홍호 |

지혜와 힘과 아름다움인 진선미는 목적을 가질 때 발현되며 그 목적은 우리의 본질로 향하는 움직임임을 말합니다(편집자 주).



마태복음 5:13 ~16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이 땅에서 하늘까지 가는 그 길을, ‘배 타고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배船’라고 정했습니다.

이제 정 다산이 예수를 믿는다고 18년 간 귀양살이하면서 『목민심서牧民心書』를 썼던 그의 이야기를 옮겨 보겠습니다.

샘물의 뜻은 항상 바다에 있었기에, 바위가 이빨 돋쳐 제 아무리 막아내도, 천 리의 험한 길을 뚫고 벗어나, 너 의젓이 험한 골을 턱 나섰구나. 반석이 편편해서 마음 놓고 달렸더니, 홀연히 천 길 벼랑 뒹굴어 떨어지네. 폭포 소리 우렁차게 성난 듯하며, 속은 듯이 노여워 부르짖었네. 나그네 마음이 그 아무리 맑아도 오히려 깊고 맑은 물만 못하리. 서리 맞은 가을 단풍 물에 비치니, 노란 유리, 맑은 수정 찬란도 하네. 바위 틈새는 물이 검푸르게 걸렸다가, 첩첩한 돌 사이를 흥건히 적셨으니, 천만 길 구름 속, 아득한 곳에 샘의 근원 찾을래야 알 길 없구나.

이 시는 다산의 「물과 구름의 노래」입니다. 물은 땅에 있고, 구름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하늘로 가는, 생각의 시詩입니다.

사람은 땅에서 나서 물처럼 흘러 벼랑에 떨어지고 고요하니, 괴어 담潭이 되었다가, 다시 바다가 되고, 구름이 되어 하늘 높이 나르는 구름과 같다. 샘물의 뜻은 바다에 있기에 아무리 험한 바위도 어린애의 의지를 꺾을 수 없고, 천 길 벼랑에 굴러 떨어져 노여워 부르짖는 젊음 이 없으면 젊음 시절이 무엇이 그리 장하랴. 그러나 머리에 서리가 내려 흰 털이 섞이고, 가을 단풍이 맑게 비치면 젊어서의 괴로움도 씻은 듯 가라앉고, 진리의 보름달이 밤하늘을 비추이네. 그러나 검푸른 바위 위에 파도가 치고, 첩첩한 돌 사이에 눈이 덮일 때 이내 마음 구름

되어 하늘에 올라 샘의 근원 요원하여 알 길 없구나. 인생은 신비하고
도 가까운 물길, 하늘의 구름과 대지의 샘물, 흐르고 흘러서 바다가 되
었다가 높이 올라 하늘을 뒤덮으니, 온 천하가 다 우리의 것이다.

결국 인생이란 땅에서 살다가 하늘에 올라가서 구름처럼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다산의 기독교적인 마음을 이렇게 시로 적어 놓은 것 같
습니다.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그 속의 내용은 세
마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거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 “너희는 세상의 마을이다.” 새 성경에는 ‘마을’이라
고 했지만 옛날 번역으로는 “산 위에 세운 성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
기에서 물론 빛은 밝은 빛이고, 산 위에 세운 성은 나라를 막는 힘이
고, 소금은 짠 맛을 말합니다. 그래서 빛과 힘과 맛, 이 세 가지를 우리
는 태양과 산 위에 세운 성과 소금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게 있다고 하면 바로 이 빛과 힘과 맛이겠지요.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도 빛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교독문 42번, 잠언 3장을 보면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아
름다운 것인가 하는 지혜에 대한 찬가를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지혜요,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언
제나 지혜가 있고,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는 말로도 쓰고 있는데 진리나 지혜나 빛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천백 명
이 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오는 것이지, 거저 오는 것이 아
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서 그 힘에 끌려오고 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또 맛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기자가 맛에 대해 쓸 때 꿀맛 같다고 쓰고 있습니다. 말에는 그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미를 붙이는 것이지요. 맛이 없으면 아무리 빛이 있고 힘이 있어도 가까이 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설교도 이 세 가지 조건이 언제나 들어 있어야 됩니다. 김동길 선생님의 설교는 참 재미있는데, 재미가 없으면 도저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재미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설교에는 깊은 뜻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배라고 하는 것은 왜 배라고 말하려는지 그 뜻이 있어야지 뜻 없이 그냥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뜻이라고 해도 좋고, 지혜라고 해도 좋고, 진리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말에는 힘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힘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에는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는 빛과 힘과 맛이 있어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이라는 것도, 사람이라는 것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도 빛이 있어야 하며, 힘이 있어야 하며, 맛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지혜를 가져야 하며, 실력을 가져야 하며, 개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성, 독특한 힘, 독특한 빛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도 예수님 속에는 그런 빛과 힘과 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도저히 사람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역시 빛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맛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진·선·미라고 하는데, 진은 곧 빛, 선은 곧 힘, 미는 곧 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진선미를 그리워하고 진선미 없이는 사는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무엇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개인을 확대해서 나라國도 그런 것입니다.

국가에도 역시 빛과 힘과 맛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빠지면 국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계, 율곡과 같은 사람들이 애쓰는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율곡은 기발이승氣發理乘이라고 했으며, 퇴계는 이발기발理發氣發이라고 했는데, ‘기’라고 하는 것은 힘이며, ‘이’라고 하는 것은 빛입니다. 그 당시는 왕정시대인데, 왕은 지혜를, 백성은 힘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혜 없는 왕, 힘없는 백성을 갖고서는 도저히 나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왕이 똑똑해야 되고, 백성이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퇴계입니다. 그리고 율곡은 우선 백성이 힘이 있어야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힘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왕은 빛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없는데 왕만 빛이 있어서 무얼하나, 라고 생각한 율곡은 조금은 민주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빛과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빛과 힘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온 백성들이 즐겁게 살 수 있는 맛이 있어야 됩니다. 재미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지知·정情·의意라고 생각하면 ‘지’는 빛이요, ‘정’은 맛이요, ‘의’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언제나 지·정·의가 있는 것처럼 나라에도 역시 지·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정·의가 없으면 도저히 나라가 되질 않습니다.

요새는 이 지·정·의를 삼권분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회는 나라의 제일 지혜로운 사람들이, 행정부는 제일 재주 있는 사람들이, 사법부는 제일 힘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행정부는 언제나 소금처럼 씹지 않아서 누가 보아도 행정부다운 맛을 내야 하겠습니까. 사법부는 힘을 갖고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는 중지衆智를 모았다고 할 만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하며, 힘과 맛이 있어야 합니다.

‘의지’는 배腹에 있다고 하여 뱃심이라고 생각하며, ‘지’는 머리에 있고, ‘정의’는 가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머리에 지가 있는 것은 확실한데 그때는 싸움하는 때라서 그런지 힘은 가슴, 어깨에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 다음에 용기, 그리고 배에다가는 절제라는 덕을 두었습니다. 절제라는 것도 요새 말로 하면 맛입니다. 조금 자리가 바뀔지 몰라도, 플라톤의 경우를 보면 맨 위에 통치계급, 그다음에 힘을 가진 방위계급, 그리고 맨 아래에 산업계급으로 구분한 것도 빛, 힘, 맛의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플라톤의 『국가』에, ‘배(선船)’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에는 선장이 있어야 하며, 기관, 옛날로 말하자면, 노 젓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조화시키는 선원이 있어야 합니다. 선장은 지혜를 가진 사람, 기관을 맡은 사람은 힘을 가진 사람, 선원들은 각기 자기대로 재간을 갖고, 그 생활에 맛을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플라톤 때문에 ‘배’라는 제목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은 배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선원들이 생각하기에 선장은 키만 움직이고 놀고먹는 것 같이 생각되어 선장을 묶어 바다에 던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후 폭풍이 일어 배를 움직이지 못하고 결국 파선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선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닙니다. 바다의 내용도 알아야 하고, 날씨도, 하늘의 별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전체적인 지식을 가진 자이지, 부분적인 지식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얼핏 보기에 놀고먹는 자같이 보이지만 그 선장의 임무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선장을 가져야지 그렇지 못하면 배가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얘기도 있습니다. 20여 년 전 콩고가 폭력으로 독립하려 할 때, 이 플라톤의 배 이야기가 많이 인용되었습니다. 지도하는 사람도 없이 어떻게 독립을 할 수 있느냐가 많이 문제되었습니다.

어떤 국가도 이 지도할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지도할 사람이 중요하며, 왕이 철인哲人이 되든지, 철인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이 전체적인 것을 모르면 나라를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하는 사람을 지혜라 하고, 기관을 맡은 사람을 용기·힘이라 하고, 맛있게 하는 선원들을 절제라 해놓고 그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지혜와 힘과 맛도 있어야 하지만 이 모든 지혜와 힘과 맛을 지혜답게, 힘 있게, 맛있게 하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정의正義라고 생각하여, 위의 세 가지들을 있게 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상 국가입니다. 국가를 국가답게 하는 것이 이상입니다. 이 나라에 이상이 있어야지, 이상이 없으면 나라가 나라 구실을 못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소위 ‘선의 이데아’라고 합니다. 나라에도 이상이 있어야 하며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전에 우리가 읽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에 보면

여덟 가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나라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यो, ……” 마음이 깨끗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것은 모두 하늘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땅에서의 이야기 같지만 하늘나라의 땅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늘나라가 하늘에 있는데 어떻게 땅에 있느냐, 라고 묻겠지만, 하늘에 있다, 땅에 있다, 라는 그런 공간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곳이 곧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실현되면 하늘이 곧 하늘나라이고, 땅에서 실현되면 땅이 곧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상수훈 전체가 하늘 나라, 즉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곳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를 조그맣게 하면 사람이 되고, 사람을 크게 하면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먹을 쥐었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주먹을 펴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다. 의를 위해 핍박 받은 자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 깨끗한 자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애통하는 자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자비한 자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의를 위해 주린 자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온유한 자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말할 때에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지만 인간적으로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를 나라답게,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은 누구인가. 하나님입니다.

지금 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라는 것은 어디로 간다고 하는 목적지가 있지요. 그 목적지의 멀고 가까운 데에 따라서 배의 준비가 더 지혜롭게도, 더 힘이 있게도, 더 맛있게도 되는 것입니다.

한강에 나가 보면, 된장찌개도 팔고 매운탕도 팔고 하는, 밤낮 매어둔 배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지가 없는 배입니다. 목적지가 있는 배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엔진도 고칠 것은 고쳐야 하고, 선장도 선원도 모두 좋은 사람을 써야 합니다. 목적지에 따라서 이 배라고 하는 것이 배 구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목적지가 없으면 배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목적지가 없으면 이 지혜와, 이 힘과, 이 맛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와 용기, 절제를 만들어내는 그 근원은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힘이란 말 대신에 동력, 지혜 대신에 형상, 맛 대신에 질료質料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동력, 형상, 질료는 무엇 때문에 있는가. 그것은 목적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은 누군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없으면 위의 세 가지가 제 구실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 없는 사람은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나는 무엇이 되겠다고 하는 결의를 가지면 무엇이 되는 것입니다. 결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되겠다고 할 것이냐. 우리는 그리스도가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이란 그리스도가 되겠다고 목적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꼭 믿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자신도 그리스도처럼 되겠다고 목적을 확실히 정하면 다 되고 맙니다. 왜?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는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나도 그리스도가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면 우리 속의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것이 성취되기 마련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 13, 14절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가 되려고 애썼나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달음질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겠다는, 그리고 되겠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달음질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의 배(선船)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적을 향해 달리는 배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할 때, 우리도 한없이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끝) 

- 이 글은 『하루를 사는 사람』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현재 **김홍호**(1919~2012) | 다석 유영모 선생께서 내리신 호는 현재. 1919년 2월 26일 평양에서 부친 김성항과 모친 황성룡 사이의 여섯 형제 중 다섯째로 출생. 1944년 일본 와세다대 법학부 졸업. 1956~1984년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및 교목실장. 미국 버틀러대 대학원 종교사학 석사. 1986년 감리교신학대 종교철학과 교수. 1996년 이화여대 명예 철학박사.